

2차전지 테마주 미끄럼틀... 공매도에 추락하는 '에코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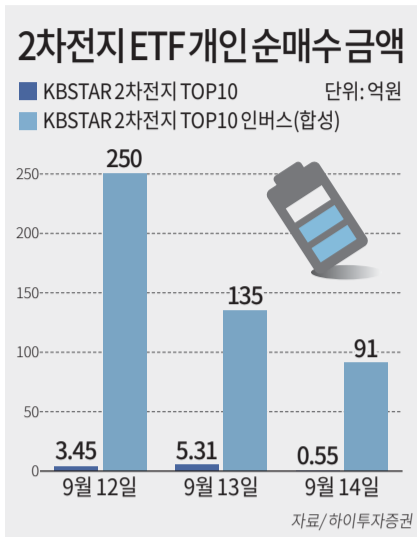
주가조정 장기화 등 공매도 급증 에코프로, 7월초 공매도 3.4만주 "예고했던 업황 부진 확인 시기" 개미들 하락 배팅 ETF 인기몰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2차전지 테마주들의 주가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공매도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2차전지주에 대한 지지심리 위축과 더불어 업황 부진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하락 배팅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2차전지 테마주 미끄럼틀... 공매도 집중돼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형제주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이달에 들어서만 28.48%, 13.71%씩 하락했다. '황제주'를 내려놓은 에코프로의 경우, 공매도 비율도 폭등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7월 초 공매도 물량은 3만6346주로 거래량의 1.23%에 불과했지만, 지난 15일에는 9만9597주를 기록하면서 거래량의 10.48%를 차지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역사적 약세장, 예고했던 2차전지 업황 부진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예고됐던 부진한 업황에 대한 기조가 유



지되면서 10월 초 잠정실적에서 업황 부진이 확인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차전지는 지난 7월에도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 조정을 겪었다. 당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에 공격적인 순매수 태도를 보이며 숏커버(빌린 주식을 되갚는 매수)가 아닌 숏스퀴즈로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했다. 숏스퀴즈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주춤했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아 고점을 조금 더 유지했다.

◆2차전지 관련 ETF 손실 확대... 하락 배팅 ETF는 인기몰이

2차전지 종목의 주가 조정이 지속되면서 관련 ETF들의 손실도 확대되고 있다. 2차전지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로 꼽히는 'TIGER 2차전지테마' ETF 구성종목(33개)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2개월만에 약 90조가 증발해 주목된다. 지난 7월 26일 479조3474억원에서 이달 15일 390조3272억원으로 약

18.5%(89조202억원)가 사라졌다.

반면, 2차전지 하락에 배팅하는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는 지난 12일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이후 이들 간은 2차전지 하락과 함께 매수했다면 14일은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개인매수가 이어졌다"며 "같은 날 상장한 'KBSTAR 2차전지TOP10'과 비교해도 2차전지 테마 하락에 배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2일 KB자산운용에서는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뿐만 아니라 'KBSTAR 2차전지TOP10' ETF도 함께 상장됐지만 희비가 교차했다. 'KBSTAR 2차전지TOP10' ETF는 2차전지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정방향 상품이다. 2차전지 인버스 상품인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는 상장 첫날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약 461억 원 순매수했지만, 'KBSTAR 2차전지TOP10' ETF는 1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차이가 벌어졌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연초 이후 지속된 2차전지 관련주 랠리 속에서 상승에 대한 부담과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주가의 상승과 조정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헤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양방향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신한미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한자산운용, 인덱스 펀드 라인업 확대

장기투자시 복리효과 최대

신한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인덱스 펀드의 상품 라인업과 판매사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에 이어 '신한미국나스닥100인덱스펀드'를 선보였다.

신한미국인덱스펀드 시리즈는 미국 대표지수를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품이다.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로 장기투자시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한 환헤지형(H)과 환율의 등락이 성과로 연결되는 환노출형(UH) 상품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해외투자형 상품 중 가장 짧은 환매주기(5영업일)를 적용했다.

실제 성과로도 경쟁력이 입증됐다. 지난 6월 8일 설정된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H)'의 3개월 성과는 지난 15일 기준 2.17%로 경쟁상품으로 볼 수 있는 S&P500 ETF를 최대0.83%포인트(p) 앞질렀다.

'신한미국나스닥100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나스닥100 지수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100개의 혁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펀드가 추종하는 나스닥100 지수의 장기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12년간 누적수익률은 574%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

서울, 전반적 고르게 상승 횡보수준

올해 들어 전국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어 횡보수준의 변화만을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아파트 가격 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니계수는 0.441포인트(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간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10월 0.462포인트(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시기로 해석된다. 이후 올해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대환 기자 kdh@

서울 강남·문정 등 뛰어난 입지에 '청약열풍'

문정동 9월 말 296세대 '집중'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강남 3구 4곳 분양 연기 확실히

연내 분양 예정된 서울 강남 3구와 강동·동대문·마포 등 인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에서는 9월 말 분양이 확실한 296세대의 문정동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북에선 이달 분양 예정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가 강북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로또 단지'로 통하는 강남 3구는 당초 분양 계획을 밝힌 9곳 중 4곳의 분양 연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달 말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에 나서는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에 주목할 만 하다. 3호선 경찰병원역 및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과 가까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문정동 일대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단지다. 일반에 분양되는 가구는 296곳에 불과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로 평당 분양가는 3582만원으로 책정돼, 전용 59m 기준 분양가가 9억 30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9월 분양한 문정래



이달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 조감도.

미안이 평당 3779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등 하반기 청약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8일 "올해 이미 청약을 했던 서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6대 1 정도를 기록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37개 단지, 총 3만134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940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강북 지역의 분양 중 가장 최대어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총 432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1641가구이다.

강동구에서도 4개의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동구 일대는 최근 최대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 중에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강남4구'로까지 불리고 있다.

670가구 일반 분양을 앞둔 '더샵강동센트럴시티', 572가구 분양이 예정된 '둔촌현대1차리모델링', 535가구를 분양할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77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천호역마에스트로' 등이 청약예정이다.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성동구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빠르면 다음달 성동구 용답동에서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특히 청계리버뷰자이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1670가구로, 일반분양 물량도 797가구로 다른 단지 대비 많다.

마포에서도 1101가구의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채윤정 기자 echo@